

 <b>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b>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도자료</h1>	국가와 국민을 위한 <b>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 KISTI</b>
<b>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b>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947 / 손영주 0997 문의: 학술정보공유센터 이은지 기술원(02-3299-6096) / 김완중 책임연구원(6291)		
배포번호 : 2020-16 배포일자 : 2020.03.24.(화)	매수 : 보도자료 3매 (첨부자료 포함)	배포처 : 대외협력실

**“부실학술출판 문제,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해결해야”**  
**- KISTI, 부실의심 학술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한 학술출판 생태계 구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부실로 의심되는 학술 정보를 확인·공유·예방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건전학술 활동지원시스템’ (Scholarly ecosystem Against Fake publishing Environment, 이하 SAFE) 베타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부실의심 학술행사에 참석하거나 부실의심 학술단체가 출판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수많은 학술행사와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일일이 찾아 확인해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SAFE는 부실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부실 학술정보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자들에게 부실 학술출판의 개념과 특징, 가이드라인, 관련동향 등을 소개하고, KISTI가 그동안 수집, 분석한 약 15만 건 이상의 학술지 정보와 48만 건 이상의 부실 의심 학술행사 정보를 담고 있다.

주요기능은 연구자들이 쉽게 부실의심 학술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지 검색 서비스’와 부실 의심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신고된 학술지 등에 대해서는 ‘부실학술활동 토론방’에서 연구자 간 토론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SAFE는 오는 10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부실 학술지·학술행사 DB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부실학술활동의 특성을 분석한 체크리스트를 개선하여 학술정보에 대한 안전지수 제공, 의심 학술활동 탐지·판별 기술 개발, 각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원 등에서 기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Open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KISTI 최희운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실학술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선의의 연구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내외 약탈적인 학술지·학술행사로 인한 피해 없이, 안심하고 연구 성과물을 출판할 수 있는 건강한 연구 환경 기반 조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요 및 현황

### □ 개요

- (목적) 건전한 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한 자원 체제 구축
  - 부실학술지/학술회의 의심 신고 기능 개발
  - 부실학술단체, 학술지, 학술회의 등 리스트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 부실 학술활동 대응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활동 수행
- (기능) 학술 DB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할만한 학술정보 축적·공유, 부실의심학회 신고 및 검증(연구자·학술단체), 부실학회 탐지·예보 등

###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메인화면 구성

- URL : <http://safe.koar.kr/>

